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PROMISE BETWEEN US

가제 : 너와의 약속

저자 : Barbara White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1월 16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 “정신 질환은 밖으로 꺼내어 중심에 놓고 이야기할 만한 주제다. 이 소설은 정신 질환에 관한 놀랍고도 현실적인 탐구 결과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Small Great Things』 저자 조디 피콜트
- * “아이 키우는 일, 부부간의 문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불화를 친근하고 흡입력 있는 문장으로 들여다본, 감정이 풍부하게 담긴 이야기” – 「커커스 리뷰」

케이틀린은 누구보다 지켜주고 싶은 딸, 메이지를 낳은 직후부터 산후 강박 장애에 시달린다. 불안 장애의 일종인 강박 장애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 잘못된 정보에 온 정신이 사로잡혀 있느라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병이다. 아이를 목욕 시키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하면, 아이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지 않을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가전제품 중에 어느 하나에서 화재가 일어나 집에 불이 나면 어찌지? 갑자기 집에 누가 쳐들어오면? 케이틀린은 이런 생각 때문에 남편 캘럼이 집에 있을 때만 메이지를 목욕 시키고, 안 쓰는 가전제품은 전부 코드를 뽑아놓고 지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잔인하고 무서운 이미지가 눈 앞을 도배한다. 이 불안한 생각들을 사실대로 털어 놓으면 메이지를 못 키우게 될 까봐 두려워서, 케이틀린은 계속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다. 그러나 꺾꺾 눌러온 케이틀린의 위태로운 거짓말은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가장 피하려 했던 결과에 맞닥뜨리고 말았다. 메이지를 더 이상 못 보게 된 것이다.

산후 강박증으로 딸을 해칠 것 같아 멀리 도망 간 엄마 – 그 후 10년, 딸을 우연히 만난다

캘럼이 출장을 떠난 기간동안, 케이틀린은 자신이 메이지를 해치는 이미지가 머릿속을 잠식하는 바람에 내내 울어대는 아이를 안아줄 수도 없었다. 그 상태로 바닥에 웅크려 흐느끼던 케이

틀린 집에 돌아와 기겁하는 캘럼에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한다. 아이를 해칠까 두렵다는 아내의 고백에, 캘럼은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고 메이지를 위해 그대로 따라줄 것을 요구한다.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사람처럼, 메이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이름도 바꾸고 살라는 것이었다. 사랑 하는 딸을 해치지 않으려면 제어할 수 없는 자신을 격리해야 했기에, 케이틀린은 캘럼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케이티 맥으로 이름을 바꾼 케이틀린은 강박장애 증상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금속 공예를 시작한다. 무거운 쇳덩이에 강한 열을 가해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해내려면 반드시 불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기술이 필요했고, 조금만 부주의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불을 침착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제멋대로 날뛰는 불안한 생각도 제어할 수 있으리란 희망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케이티는 쇠를 다루면서 과도한 불안을 잠재우는 법을 익힐 수 있었고, 메이지를 보지 못하는 아픔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그런데 일 때문에 다시 전에 살던 도시로 가야만 하는 일이 생기고, 10년 만에 메이지가 있는 곳으로 온 케이티는 훌쩍 커버린 딸과 마주한다. 그리고 또 다시 충격에 사로잡힌다.

10살이 된 메이지는 재혼한 캘럼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캘럼의 절친한 친구인 잭도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면서 메이지를 돌보고 있었다. 아이는 친 엄마가 어릴 때 죽은 걸로 알고 있었다. 케이티의 공예 수업에 학생으로 찾아온 메이지를 한 눈에 알아보고, 당장 달려가 끌어안고 싶었지만 10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까스로 참아냈다. 메이지가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것에 내심 흐뭇해하던 마음도 잠시, 케이티는 믿기 힘든 사실을 포착한다. 메이지에게서 강박 장애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누구보다 그런 행동을 잘 아는 케이티는 조심스레 아이를 더 살펴보기 시작하고, 메이지는 새엄마 리아가 동생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임신한 엄마나 동생에게 끔찍한 일이 생길까 너무 걱정된다고 털어 놓는다.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메이지를 보면서 절망한 케이티는 이 병이 어린 딸까지 잠식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하지만 캘럼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다시 나타난 것도 모자라 메이지 엄마 노릇을 하겠다는 요구를 누가 받아들일까?

케이티와 메이지, 캘럼, 잭, 그리고 메이지의 새엄마 리아까지 다섯 명의 시선을 따라가는 이야기는 이들 모두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과 악몽이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드러낸다. 겨우 열두 살에 집에서 엄마가 아빠를 칼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술에 절어 사는 엄마 대신 여동생의 부모 노릇을 해야 했던 케이티의 과거와 함께 캘럼의 가족과 이상하리만치 가까이에서 지내는 잭의 실체, 완벽한 가정에서 자란 캘럼의 놀라운 비밀도 드러나기 시작한다. 정신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그린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바바라 화이트(Barbara White)는 영국에서 태어나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The Unfinished Garden』, 『The In-Between Hour』, 『The Perfect Son』 등 주로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 왔다.

제목 : DEATH AND OTHER HAPPY ENDINGS

가제 : 죽음과 함께 온 해피엔딩

저자 : Melanie Cantor

출판사: Penguin(US), Transworld Publishers(UK)

발행일: 2019년

분량 : -

장르 : 영미소설일반



*** 이스라엘,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 살 수 있는 날이 90일 남은 40대 여성의 인생 정리, 하나 둘 밝혀지는 비밀과 갈등, 화해**

마흔 여섯 살의 제니퍼 콜은 앞으로 살 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아주 희귀한 혈액 질환이 발견됐다고 알려준 사람은 30년 넘게 가족 주치의로 만나온 닥터 맥켄지였다. 제니퍼는 병명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병의 이름도 아주 길고 어려웠다. 이 병은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나온 치료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니퍼의 병은 너무 늦게 발견됐고 이미 급속히 진행 중이라 당장 치료를 시작해봐야 돈 쓰고 고통만 더할 뿐이라고, 의사는 솔직한 의견을 전했다.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요즘 만나는 사람 있냐”는 닥터 맥켄지의 뜬금없는 질문에 장난스럽게 대답했는데, 불과 몇 분만에 유쾌한 기분은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의사의 질문이 결국 보호자가 있냐는 의미였음을 깨달은 제니퍼는, 어쩌다 지금 곁에 남편도, 애인도, 자식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 곰씹어보기 시작한다.

시한부 선고 후 죽기 전 할 말은 다 해버리자며, 전 남편, 전 애인, 언니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제 곧 세상을 하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던 제니퍼는 어차피 이 듣기에도 곤란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 연락을 해야 한다면, 오랫동안 마음 속에 묵혀두기만 했던 감정을 훌훌 털어버릴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마음먹는다. 분명히 결혼을 했었고, 아이도 낳으려고 했었고, 결혼 생활이 끝난 이후에는 오래도록 함께할 남자친구가 다시 생겼었는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끝에 지금 혼자 남아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었으니 기분이 정말 이상했다. 제니퍼는 자신과 함께 했던 중요한 그 사람들에게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해볼 생각이었다. 사랑하지만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온 언니 이사벨, 제니퍼가 세 번째 유산을 한 뒤 다른 여자와 재혼한 전 남편 앤디, 그리고 바람 피우다가 딱 걸린 것으로 모자라 거짓말만 하다가 큰 상처만 남기고 떠난 남자친구 해리였다.

죽기 전에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로 한 자리에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버린 제니퍼는 다음 날 바로 후회했다. 그리고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기다리지 않으려 애쓰는,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낸다. 얼굴 볼 날이 90일 정도 밖에 안 남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모두가 연락을 해오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확고한 동기가 마술처럼 발휘되어 다들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털어 놓는다. 제니퍼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이들을 보면서 응어리진 마음이 확 풀리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문제는 끔찍히 숨겨둔 비밀이 한 번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고삐가 풀려버린 솔직함이 통제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몰랐어야 하는 이야기, 모르면 차라리 나았을 진심까지 마구 쏟아지고 제니퍼는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당하기 힘든 진실들과 마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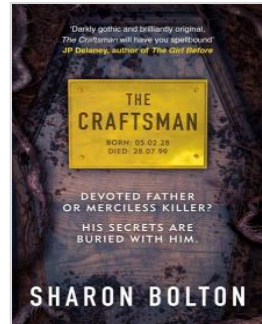
언니 이사벨은 일단 제니퍼의 병이 유전병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딱 자기다운 반응을 보였지만, 온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곁에 있어주겠다고 했다. 제니퍼는 이제야 자매끼리만 통하는 끈끈함이 생긴 것 같아 크게 감동하고, 마찬가지로 심정이 된 이사벨은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한다. 남편 마틴도 있고 세실리와 소피아, 두 딸아이를 두고 벌써 2년째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딸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고, 나이는 스물아홉으로 마흔여덟인 이사벨보다 무려 스무 살 가까이 젊은 남자가 그 상대라고 했다. 그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이사벨과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난 나머지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마틴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을 해대는 통에 위기에 처한 이사벨은 제니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무엇이 언니를 위하는 일인지 고민에 빠진 제니퍼는 재혼 후 잘 산다고 생각했던 전 남편 앤디에게서도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다. 두 사람이 부부였던 시절, 거둬들인 유산 때문에 제니퍼가 절망할 때 바람을 피운 앤디는 이혼 절차가 끝나자마자 후다닥 재혼을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가 막심하다는 고백과 함께 두 번째 결혼은 숨통이 막힐 정도로 괴롭다고 털어 놓은 것이다. 제니퍼도 앤디의 현재 부인인 엘리자베스가 사람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타입이고 재혼 이후에는 앤디와 제니퍼가 단 둘이 만나지도 못하게 단속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지만, 앤디가 꺼내 놓는 이야기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앤디는 진심으로 불행한 것 같았다. 후련한 기분으로 세상을 떠나려다 머리만 복잡해진 제니퍼는 의도치 않게 이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고, 전보다 더 큰 혼란이 벌어진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제니퍼의 병이 오진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다. 물어버린 관계를 바로잡고 삶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는 제니퍼의 목표는 과연 이루어질까? 폭소와 감동이 모두 담긴 솔직 담백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멜라니 칸터(Melanie Cantor)는 20대부터 홍보 업계에 뛰어들어 팝스타를 비롯한 여러 유명 인사들의 에이전트로 일했다. 2013년부터 전업 작가로 전향하여 파버 아카데미에서 소설 창작 코스를 마쳤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

제목 : THE CRAFTSMAN
가제 : 장의사
저자 : Sharon Bolton
출판사: Trapeze
발행일: 2018년 5월 3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범죄/스릴러소설



- * “암울한 고딕 분위기가 가득한, 너무나 독창적인 소설. 독자를 홀릴 만한 이야기” – 소설가 JP 딜레이니(JP Delaney)
- * “마음 속에 가장 큰 두려움을 고집어내서 현실로 만드는, 절대적으로 훌륭한 범죄 소설” – 소설가 엘리 그리피스(Ellly Griffiths)
- * 미국 10만 달러 단위 계약!

1999년 8월, 무더운 날에 랭커셔의 썸튼 카운티에서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인파가 빼곡히 들어찬 이 현장에 영국 경찰국 부국장 플로렌스 러브레이스도 아들 벤과 함께 도착했다. 이 날 장례식의 주인공은 바로 1969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범, 래리 글래스브룩이었다.

래리는 손재주가 뛰어난 목수로 직접 관까지 만들어서 장례를 돕던 장의사였다. 30년 전 6월에 썸튼 카운티에 살던 열세 살 팻시 우드가 이틀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랭커셔 경찰국에 신입 형사로 들어온 플로렌스는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오가는 수상한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지시를 받고 처음 썸튼 카운티에 찾아왔다. 팻시 우드의 실종 직전에도 몇 개월 사이 두 명의 아이들이 사라졌던 터라 마을 전체에 공포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아이들은 마을 공동묘지에서 누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며, 최근에 시신이 묻힌 묘가 있는 쪽을 지목했다. 성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이라 유일한 여성 경찰이던 러브레이스는 동료들의 노골적인 차별 속에서 더욱 이를 악물고 범인을 찾아 나선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사라진 팻시 우드의 시신이 관속에 들어 있는 채로 발견되는데, 뭔가 이상했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관에 갇힌 징후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아이와 꼭 빼 닮은 점토 인형이 시신 옆에 놓여 있었다. 대체 누가 이런 이상한 짓을 저질렀을까?

러브레이스는 타고난 근성과 집요함을 앞세워 이전에 실종된 두 아이들과 팻시 우드의 연관성을 추적했고, 연이은 아동 살인이 1600년대부터 썸튼 카운티 지역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사건들과 관련이 있음을 느끼고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1612년, 아홉 명의 마을 여성들이 ‘마녀’로 지목되어 처참하게 사형을 당했다. 주술, 마녀 집회, 무덤을 망가뜨리는 행위들, 그리고 지역 유지들까지 참여한 프리메이슨 집단의 수상한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잠시 과거에 눈을 돌리고 있던 그때, 또 한 명의 어린 소녀가 사라지면서 동네가 발칵 뒤집힌다. 윤곽도 잡히지 않은 살인범 때문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지만 러브레이스는 앞선 세 건의 실종 사건과 어딘가 미묘하게 다른 패턴을

발견하고, 다행히 사라진 아이의 위치를 추적해 무사히 집에 돌려보낸다.

경찰국은 팻시 우드의 시신이 누워 있던 관을 직접 만든 장의사 래리 글래스브룩이 비정상적인 믿음 때문에 아이들을 잡아들여 생매장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래리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서 연쇄 살인사건은 일단락됐다. 평소 성실한 성격에 집에서도 자상하고 헌신적인 아버지로 살았다는 래리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이웃들은 경악했고, 러브레이스는 래리가 진짜 범인인지 확신하기 어려워서 마음 한 켠이 찢찢했다. 그러나 본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한 이상 어쩔 수 없었다.

지난 30년간 살인죄로 그가 교도소에서 지내는 동안 러브레이스는 꾸준히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곤 했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야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로 돌아온 래리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러 온 러브레이스에게 그 시절의 기억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일터에서의 성차별의 기억이나, 자신의 너무 집요한 수사 스타일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배척 당하고 수사에서 손을 놓아야 했던 안 좋은 기억들을 이제는 다 떠나 보내자고 마음 먹는다.

그러나 상황은 그녀의 희망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함께 데려온 아들 벤이 조르는 통에 수사당시에 머물렀던 래리 글래스브룩의 집을 다시 찾아가면 러브레이스는 흥가가 되어버린 낡은 집안에 들어갔다가 점토 인형을 하나 발견한다. 30년 전 죽은 아이의 관 속에서 나온 것과 같은 종류로 보이는 그 인형은, 빨간색 곱슬머리를 비롯한 모든 특징이 영락없는 러브레이스의 모습이었다. 내내 교도소에 있었던 래리가 만든 게 아니라면, 대체 누가 이 인형을 만들었을까?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사이, 진짜 범인은 이 긴 세월 동안 회색빛 거리를 활보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을까? 매일 혼나던 신입 형사에서 현재 영국 여성 경찰 중에 가장 높은 직위인 부국장 자리에 오른 러브레이스는 래리가 감옥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 범행 이유는 ‘사랑’이었다고 한 말을 떠올리며 사건을 다시 파헤쳐보기로 한다. 경찰로써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범인이 새롭게 노리는 대상이 자신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러브레이스의 불안한 예감은 사실로 드러나고, 충격적인 범인의 실체가 마침내 조금씩 드러난다.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자주 접한 미신과 소문을 토대로 완성한 오싹하고 기발한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샤론 볼튼(Sharon Bolton)은 2000년부터 소설가로 활동해 왔다. 할리우드 영화로도 제작된 데뷔작 『Sacrifice』은 영국 아마존에서 투표를 통해 최우수 신작(Best New Read)에 뽑혔고 두 번째 소설 『Awakening』은 2010년 매리 히긴스 클락 상(Mary Higgins Clark Award)을 수상했다.

『Lost』는 2014년 RT 매거진 최우수 현대 스릴러소설로 선정되었으며 『Now You See Me』는 프랑스에서 ‘Plume de Bronze’ 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거나 후보에 올랐다. 『Little Black Lies』와 『Lacey Flint』는 TV 옵션이 판매됐다. 현재까지 발표한 소설은 전 세계적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100만 부 이상 판매됐다.

제목 : PERFIDIOUS ALBION

가제 : 못 믿을 영국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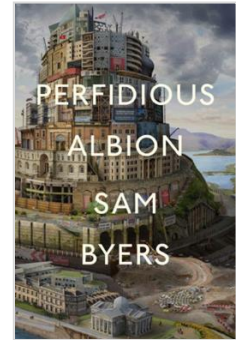
저자 : Sam Byers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8년 8월 2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영미문학일반/SF/사회풍자



*** 현대판 「1984」, 분열된 영국의 민낯을 냉정하게 파헤친 풍자 소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섭고 확실한 무기가 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세 치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표현에 담긴 것처럼 의도적으로든 이유가 있어서든 말 한 마디가 갖는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말을 하고, 대다수가 하는 말이라면 합리적인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는 이 말의 무서움은 미래에도 형태만 바뀔 뿐 비슷하지 않을까? 나폴레옹이 영국을 비난하는 의미로 지칭한 표현을 그대로 제목으로 택한 이 소설은 네 명의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도 여전히 발휘되는 말의 파괴력을 보여준다. 최첨단 기술과 더욱 냉혹해진 사회적 환경 속에서 최첨단 기술과 결합되어 영향력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그것들에 휘둘리는 사람들, 그리고 ‘채팅 방에서 스멀스멀 흘러나와 거리를 피투성이로 만드는’(본문 중에서) 이러한 세대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위트와 함께 풍자적으로 묘사된다.

영국의 소도시, 에드먼즈버리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불신과 혐오, 불안감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만연하다. 정확한 이유나 대상이 없는 이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대중의 주된 흐름으로 만드는 일등공신은 우익 정당 ‘잉글리시 울웨이즈’다. 이 정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휴고 벤자민은 구독자수가 많은 잡지에 연재 중인 칼럼을 통해 소속 당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가령 ‘평등이란 무엇일까요?’라는 제목의 짤막한 글에서 휴고는 ‘평등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말머리를 연다. 물론 평등은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평등도 과할 수가 있을까요?’라는 본격적인 주제가 등장한다. 한정된 토지에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갈 곳을 잃은 난민들이 끊임없이 몰려와 주거지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 평등을 내세우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이어서 제기된다. 모든 사업장이 영국인 한 사람당 외국인 세 명과 여성 두 명을 고용해야 하고, 최소 한 명은 동성애자여야 한다는 평등 강화 법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선조들이 땅 흘려 지켜낸 땅과 자원을 이렇게 계속 나눠 써야 한다는 생각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휴고는 독자들에게 묻고 그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생각해볼 것을 권유한다.

정치권 외에도 사람들의 생각을 휘두르는 주체가 또 있다. 소위 ‘지식인’들이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나 대중들이 많이 보는 언론, 방송에서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의견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열리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주류’ 의견이 형성될 때까지 자신의

의견을 보류한다. 다양한 분야, 다양한 출신의 학자들 혹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용감하게 자신이 ‘해석’한 그 행사 혹은 사건의 본질을 밝히고 그 생각이 독창성과 설득력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정말 삼시간에 대중의 의견으로 자리를 잡는다. 더 이상 신문이나 뉴스 같은 매체의 2차 분석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몇몇 지식인이 밝힌 생각은 곧바로 사람들의 귀와 눈으로 들어가 눈감짝할 사이에 모두에게 알려진다. 만약 누구도 강력한 주장이나 분석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때 비로소 누구나 나름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하고, 하나로 모이지 않은 생각들은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진다. 로버트 타운센드는 최근 부동산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한 칼럼으로 신에 지식인 대열에 올랐다. 주택 부족으로 집값이 한도 끝도 없이 상승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쫓겨나야만 하는 현실을 꼬집은 로버트의 글은 그 분야의 ‘주류’ 견해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럴수록 로버트는 무슨 일이든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만 한다는 일종의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 싸울 일 하나 없이 평온하기만 했던 제스와의 연애가 뼈걱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부터였다.

제스는 비판적인 사고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기회주의적인 ‘여론 쫓아다니기’ 방식에 신물이 난 상태다. 로버트처럼 앞다퉈 자기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지 못해 환장한 듯한 사람들과 그런 이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대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사람들의 음흉한 목적이 가져올 피해를 염려하던 제스는 인터넷 상에서 조직화되는 여성 혐오 문화가 바로 그러한 분위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특히 ‘애도하는 사람들’이라는 묘한 의미를 가진 ‘그리퍼스(griefers)’라는 단체가 등장하여 기괴한 가면을 쓴 채로 여론 물이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자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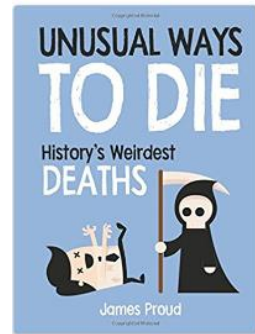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이크로 근무자’를 관리하는 트리나 제임스다. 출퇴근은 다 옛날 일이 되고, 거의 모든 업체는 해야 할 일을 극도로 세분화하여 능력, 학벌, 전공과 상관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 단위로 쪼개 다음 마이크로 근무자들에게 맡긴다. 일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쪼개진 거대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맡아서 처리하고 돈을 벌고, 근무 시간이나 업무량, 근무 장소도 다 마음대로 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근무자들의 성실성과 생산성을 모니터링해온 트리나는 대다수가 ‘가장 이상적인 근로 방식’이라고 칭송하는 이 시스템에 얼마나 결점과 취약점이 많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려면 업무량이 얼마나 많아지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일에서 느끼는 보람은커녕 무슨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른 채 로봇처럼 단순한 일을 반복하면서 지쳐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바로 눈 앞에서 목격하기 때문이다. 에드먼즈버리에 불어온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이 암울한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을까? 코믹하지만 웃을 수 만은 없는 미래의 모습을 기발하게 전망한 독특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샘 바이어스(Sam Byers)는 뉴욕타임스, 타임즈 문예부록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데뷔소설 『IDIOPATHY』는 워터스톤스에서 매년 선정하는 인기순위 11위를 차지하고 베티 트래스크 상(Betty Trask award)을 수상하였으며 데스몬드 엘리엇 상과 코스타 데뷔 소설상 결승에 올랐다.

NON-FICTION

제목 : UNUSUAL WAYS TO DIE
가제 : 황당한 죽음의 역사
저자 : James Proud
출판사: Summersdale Publishers
발행일: 2018년 6월 14일
분량 : 128 페이지
장르 : 유머/역사



* 고대부터 현대까지, 뜬금없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

‘호상’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는 생의 마지막 순간이 평온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그만큼 드물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고로 눈깜짝할 사이에 목숨을 잃고 주변 정리는커녕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죽음도 너무나 많고, 가벼운 병인 줄 알았다가 병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세상에는 훨씬 더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생각지도 못한 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들을 찾아서 기록해 온 저자는 그와 같은 사례들을 모아 귀여운 일러스트와 함께 이 책에서 소개한다. 세탁물이 내려가는 긴 통로인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쓰레기 압축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너무 늦어버린 어느 학생, 동화 속 이야기도 아닌데 실제로 도끼를 휘두르는 꿈에게 목숨을 빼앗긴 스위스의 한 국회의원, 공중에서 떨어진 거북이에 맞고 숨을 거둔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에 이르기까지, 어이 없이 세상을 떠난 사례들이 각 페이지마다 짙막하게 소개된다.

장 바티스트 뤼리는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에 왕실 음악가로도 활동한 저명한 작곡가다. 당시에는 지휘봉이 지금처럼 짧고 가는 막대기 아니라 간달프 지팡이처럼 아주 길고 굵은 형태였고 뤼리는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지휘할 때마다 그 길쭉한 지휘봉을 바닥에 쿵쿵 찍으면서 박자를 맞추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듬에 푹 빠져 지휘봉으로 바닥을 치던 뤼리는 그만 자신의 발가락을 내리 찍고 말았다. 이 사고는 눈에 별이 번쩍하는 통증으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질환인 발가락 괴저로 이어졌는데 당시에는 얼른 그 부위를 절단하는 것 외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 문제는 발레를 사랑하는 댄서이기도 했던 뤼리가, 다시는 춤을 출 수 없다는 생각에 치료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뤼리는 괴저가 다른 부위까지 확산되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대표적인 철학자로 꼽히는 프랜시스 베이컨은 평소에도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직접 실험하는 걸 즐기던 사람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가득 쌓인 런던을 지나던 베이컨은 문득 ‘저 차갑고 하얀 눈으로 육류를 감싸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린다. 곧바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생닭을 구해서 속에 얼음을 가득 채워 넣었다. 초기 냉장 기술을 실험해본 것까진 좋았지만, 예정에

없던 야외 실험으로 폐렴에 걸렸고, 결국 그것이 생애 마지막 실험이 되었다.

별의별 사고와 병, 갑작스러운 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직업군별로 연간 총 사망자수를 정리한 결과 1위가 농부라는 놀라운 자료 등 죽음과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들도 함께 제공된다. 쥐와 함께 좁은 공간에 가두기, 청동으로 만든 통에 집어넣고 ‘굽기’ 등 지구촌 곳곳에서 활용된 잔인한 사형 방식에 관한 내용도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다.

죽음의 신에게도 어쩌면 독특한 개그 감각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온갖 사례들은 엉뚱하지만 실제 일어난 일이기애 더욱 놀랍다. 아무 페이지나 열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전선 - 마이클 앤더슨 고드윈

희비극 - 알렉스 미첼

공중에서 죽다 - 레지널드 추아

왕좌의 고통 - 죄르지 도저

물이 가야할 곳 - 제니퍼 스트레인지

해로운 두꺼비 - 신원미상

인간 오븐 - 블라드미르 라진스키

두 반쪽의 게임 - 베나 샤디

달콤한 무덤 - 나타샤 해리스

화장실에서 - 에드먼드 2세

땅 속으로 - 대디얼 존스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제임스 프라우드(James Proud)는 독특한 이야기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프랜차이즈 매체 ‘Ripley's Believe It or Not’에서 작가, 연구자로 수년간 활동했다.

제목: THE HEALTHY BRAIN

가제: 뇌를 평생 건강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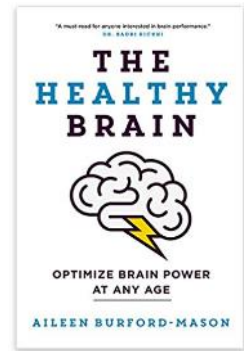
저자: Aileen Burford-Mason

출판사: Patrick Crean Editions

발행일: 2017년 12월 19일

분량: 304 페이지

장르: 건강/뇌과학



*** 부실한 영양 섭취가 뇌 건강과 기능에 끼칠 수 있는 엄청난 악영향을 설명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건강서**

의학이 발전했음에도 해결책이 없는 무서운 질병을 꼽자면 아마도 치매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것 같다.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치매와 알츠하이머는 피하는 것 외에 명확한 치료법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살고 있다.

의학과 영양을 함께 연구해온 저자는 치매에 걸리고 싶진 않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 그래서 평소에 애써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뒤집는 중요한 포인트를 이 책에서 제시한다. 바로 치매나 우울증, 자폐증, 인지장애 등 현대인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정신 질환은 뇌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가장 발생하기 쉽다는 사실이다.

대사활성도의 측면에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통틀어 가장 활성 수준이 높은 곳인 만큼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은 다른 기관의 열 배 정도 더 높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영양이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뇌라는 의미다. 저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영양과 의학의 연구 결과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듬어서 식습관과 올바른 영양 보충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뇌 기능을 최적 상태로 만드는 단계별 지침을 제시한다.

적절한 영양 보충이 뇌 기능의 핵심 - 치매, 기억력, 기분, 집중력까지 크게 좌우한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치매에 걸린 인구는 전 세계 4,750만 명에 이른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치매를 노화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대다수의 생각과 달리 과학계에서는 치매가 생활 질환이며 영양 결핍과 운동 부족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사실이 무수한 증거를 통해 밝혀졌다. 의학계는 물론 제약 업계에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방법을 찾지 못한 이유도 원인이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저자는 세심한 식생활 관리와 적절한 영양 보충으로 뇌 기능을 얼마든지 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전까지 영양 상태가 어떠했는가와 무관하게, 지금 바로 시작해도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유전적인 소인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러한 사실은 뇌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양이 부족하

고, 그러한 상태가 일상적으로 지속될 경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 뇌 상태가 어떠하든, 후천적인 영양 관리로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은 물론 그 이상의 기능을 끌어낼 수 있다. 뇌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각 요소와 영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따라 정신질환은 물론 기억력과 기분, 집중력이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일상 생활을 위해서도 뇌의 필수 영양을 충족시켜 이 모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창의력과 업무 효율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식습관 전략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이보충제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뇌 건강은 다이어트처럼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바짝 애써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하며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인지능력을 지키고 삶을 보다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와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부. 뇌 - 사용설명서

- 1장. 시간을 넘나드는 여정
- 2장. 선천적 vs. 후천적
- 3장. 영양과 인지능력의 관계
- 4장. 비타민, 무기질과 뇌 기능

2부. 뇌 기능이 중단되면

- 5장. 알츠하이머와 치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 6장.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 7장. 뇌 손상: 외상과 뇌졸중

3부. 다시 처음으로 (8-10장)

4부. 뇌를 평생 건강하게 (11-13장)

5부. 전략 수립 (14-15장)

부록: 과일 야채 일기

<저자 소개>

에일린 버포드 메이슨(Aileen Burford-Mason)은 번역학자이자 세포 생물학자, 영양학자로 현재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토론토 종합병원 암 연구소의 대표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Eat Well, Age Better』가 있다.

제목 : THE COEN BROTHERS

가제 : 코엔 브라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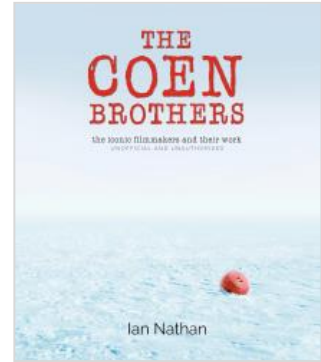
저자 : Ian Nathan

출판사: Aurum Press Ltd

발행일: 2017년 11월 9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문화/영화



★ “화려한 사진 자료만으로도 읽을 가치가 있는 책” – 「Spectrum Culture」

★ “영화 팬들은 반드시 봐야 할 책” – AwardsCircuit.com

형 조엘 데이비드 코엔과 동생 이든 제스 코엔이 한 팀으로 만들어낸 영화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독창적으로 해석하여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가상의 공간과 현실을 미묘하게 혼합한 영화 <바톤 핑크>로 칸 영화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한 두 형제는 고향인 미네아폴리스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파고>로 아카데미 각본상, 전미 비평가협회 최우수 작품상을 휩쓸며 영화광들의 우상으로 또 한 번 자리매김했다. 일상적인 이야기 같으면서도 숨겨진 의미와 상징들이 가득한 장면과 대사들은 세 살 터울에 외모와 성격은 별로 비슷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마치 쌍둥이처럼 함께 작업해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살짝 냉소적인 유머와 명확한 스타일 - 색채가 뚜렷한 형제 감독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영화 각본가이자 영화 잡지 편집자인 저자는 <애리조나 유괴사건>, <위대한 레보스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 코엔 형제를 대표하는 작품들과 컬트 영화로 분류되는 <이블 데드>, <사랑해 파리>, <시리어스 맨>과 같은 작품들을 분석하여 영화 팬들을 사로잡은 그들의 매력을 파헤친다. 영화 제작 현장과 완성된 영화 장면이 담긴 150여 장의 컬러와 흑백 사진이 페이지마다 가득하며 코엔 형제가 함께 완성한 시나리오에서 영화의 핵심이 되는 대사의 배경을 설명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코엔 형제의 상상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은 영화 <시리어스 맨>에서 주인공 래리는 인생이 꼬여도 너무 꼬이자 신을 원망한다. 대학 교수인 그는 종신 재직권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누군가 래리의 치명적인 문제를 학교 측에 고발하여 그 희망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고, 아내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친구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한다. 아들과 딸도 양전하고 착실한 아이들과는 거리가 멀다.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터지자 래리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듯 “왜 나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이 억울함의 이유라도 찾기 위해 랍비를 찾아간다.

시나리오 작업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고민에 빠진 극작가가 주인공인 영화 <바톤 핑크>에서는 제대로 본 적도 없는 레슬링에 관한 글을 쓰기로 덜컥 약속한 핑크에게 벌어진 황당한 사

건들이 그려진다. 비서에게 대필을 맡기는 작가를 우연히 만나고, 결국 대필의 유혹에 넘어간 핑크는 살인 사건에 휘말려 경악하면서도 일련의 사건들이 자극제가 되어 좀처럼 풀리지 않던 글이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코엔 형제의 영화는 어딘가 침울하고 냉소적이면서도 웃음과 폭소를 자아내고 아름다움 속에 인간의 잔혹성과 냉혈한 특성이 섞여 있어 영화 장르를 구분하기 힘들다.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일 같으면서도 점점 기발하고 독창적으로 흘러가는 스토리에는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충실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저자는 두 형제가 만들어낸 영화에 나타나는 이 같은 개성을 주요 장면과 대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고,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지 분석해본다.

<목차>

머리말

풋내기 시절 - 미네소타 성장기

“해결책을 못 믿으면 대체 뭘 믿을 수 있어”

- <블러드 심플>, <애리조나 유괴사건>, <밀러스 크로싱>

“마음의 삶을 보여주지”

- <바튼핑크>

“인생에는 그깟 돈 몇 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 <허드서커 대리인>, <파고>

“그냥 견뎌야지.”

- <위대한 레보스키>

“당신 대체 뭐요?”

- <오 형제여, 어디에 있는가>,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지금 누가 더 멍청한 것 같냐?”

- <참을 수 없는 사랑>, <레이디 킬러>

(이하 생략, 총 11장까지 구성)

<저자 소개>

이안 네이션(Ian Nathan)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각본가로 꼽힌다. 영화 잡지 앰파이어의 편집장을 지냈으며 현재도 편집자로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Alien Vault, the best-selling history of Ridley Scott's masterpiece』, 『Terminator Vault』, 『Tim Burton』 등이 있다.

제목 : WHAT IS PHILOSOPHY FOR

가제 : 철학은 왜 필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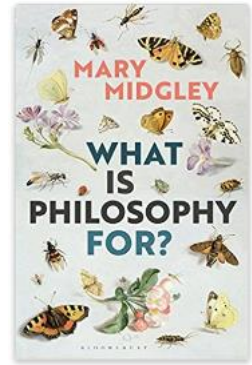
저자 : Mary Midgley

출판사: Bloomsbury Academic

발행일: 2018년 9월 20일

분량 : 232 페이지

장르 : 철학



★ 철학의 역할과 필요성, 가치를 강의하듯 조목조목 설명한 안내서

★ 철학의 목적과 역할은 현재 우리의 고민에 도움이 될 만한 생각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

철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문학 열풍으로 철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일반인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철학 강연이나 관련 서적도 많아졌지만, 단순히 유행에 편승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왜 철학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 왜 철학이라는 분야가 존재할까? 도통 이해하기 힘든 철학이 역사와 문학, 종교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형체가 없는 난해한 생각들로만 느껴지는 철학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주기는 하는 걸까?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혼란과 불안 - 모두 철학과 관련이 있다

철학을 가르치고 철학에 관한 다양한 글을 써온 저자는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혼란과 불안이 철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과학과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생활의 편리함만큼 늘어난 불안과 혼란을 과연 철학이 해결해줄 수 있을까? 저자는 의미와 지식, 가치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우리에게 철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여기저기 편재한 생각들 속에서 공통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생각은 철학이 된다. 그러나 항상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마치 종류가 다른 퍼즐의 부분부분을 가져다가 하나의 그림으로 짜집기한 것과 같은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불완전한 세계관과 경계가 정확히 맞지 않아 울퉁불퉁 겨우 붙어 있는 이 같은 그림은 과학과 역사, 수학, 지리학, 천문학, 그리고 종교 등 광범위한 학문이 결합되어 하나의 철학을 이론 모습에 비유할 수 있다. 전부 제각기 다른 퍼즐 판에서 가져온 부분들이기에 비슷한 구석이 전혀 없고 심지어 적대적이기도 한 이 구성의 문제는 현대 물리학의 이론이 독실한 종교인들의 아이디어에서 맨 처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종교학자들이 물리학 이론에서 공통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최신 물리학 이론에 통달한 현대 과학자들은 사실 종교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저자는 이것이 철학의 본질적인 특징이자, 과학과 확연히 다른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떠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견 단계를 거쳐 점점 발전해나가는 것과 달리 철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 변화에 반응하는 여러 분야를 포괄하여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일치하는 부분을 집어낸다. 즉 철학의 목적과 역할은 완벽하고 예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고민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생각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쉼 없이 변화하는 이상, 철학이 찾은 그 공통점이나 해답도 영원할 수는 없다. 그 변화를 따라가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시각을 대부분 좌우하는 과학은 물론 다른 분야들에 관한 지속적인 탐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처럼 하나의 철학이 완성되기까지 거치는 각 과정과 의미를 소개하면서 궁극적으로 철학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준다. 그저 여러 학문 중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 철학과 철학적 사고의 과정을 현실과 접목시켜서 분석한 책이다.

<목차>

1부. 이정표를 찾아서

1. 길 찾기
2. 생각도 시대에 뒤쳐질 수 있을까?
3. 연구란 무엇일까?
4. 방법의 충돌
5. 이정표의 문제 (이하 생략, 총 11장까지)

2부. 과학이 제시하는 솔깃한 비전

12. 세계관의 영향력
13. 과거는 죽지 않는다
14. 과학 만능주의: 새로운 유혹

3부. 분별력 상실과 기계 숭배

15. 권력 싸움
16. 실종자들
17. 신탁

4부. 특이성과 우주 (18-24장)

결론

<저자 소개>

메리 미질리(Mary Midgley)는 영국 뉴캐슬 대학교의 철학 교수로 인간의 본성과 과학, 윤리, 동물, 환경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로 저술 활동을 이어 왔다. 저서로는 『Beast and Man』, 『Heart and Mind』, 『Animals and Why They Matter』 등이 있다.

제목 : THE DARKENING AGE

가제 : 기독교 승리의 민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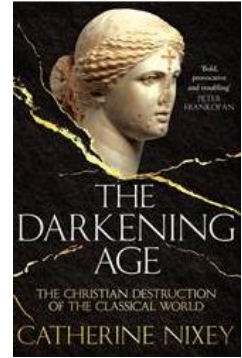
저자 : Catherine Nixey

출판사: Macmillan

발행일: 2017년 9월 21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역사/종교



- *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판권 계약 체결
- * 2015년 영국 왕립 문학협회 저우드 상(Jerwood Award) 논픽션 부문 수상작
- * 통념을 능숙하게 바로잡고 잘 읽히는 점이 프랭코판의 『실크로드 세계사』를 연상시키는 책
- * 메리 비어드, 톰 홀랜드의 애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도서!

기독교는 서구 문명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미개한 중세 시대에 자칫 소실될 뻔한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된 고대 자료를 지켜낸 것도, 귀중한 고대 유산을 보존한 것도 기독교 덕분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유럽 곳곳의 박물관이나 도서관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는 문헌과 자료들이 당당하게 전시되어 있고 수백 년간 운영된 수도원에는 고대 사회의 지혜와 역사가 담긴 유물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현대 역사가들은 다양한 종교와 믿음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시대가 가고 기독교가 유럽 대륙 대부분을 휩쓴 1세기의 대대적인 변화를 ‘기독교의 승리’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이 승리가 그 어떤 문명보다 뛰어나고 우수한 서양 문화의 기틀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사실일까?

저자는 이 ‘승리’라는 말에 함축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떠올려보면, 승리는 단순히 갈등과 대결 후에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것이 아니다. 진 쪽은 반드시 승자에게 ‘예속’되어야 하며, 이긴 쪽은 패자의 육체와 재산은 물론 정신까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 승리란 곧 ‘절멸’과 동의어였던 이 시기에 기독교가 ‘유일무이한 진정한 믿음’임을 앞세우며 자행한 행위 역시 개종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침략 그 자체였다. 저자는 온순하고 자애로운 이미지로 알려진 초기 기독교인들이 실제로는 전투적이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방식으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고전 문화를 모조리 짓밟고 승리를 거둔 충격적인 역사를 이 책에서 소개한다.

터키 하란에서는 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갈가리 찢겨 사지가 시내 한복판에 내걸렸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명망이 높았던 히파티아라는 여성 학자가 기독교인들의 손에 끌려 나와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몸의 껍질이 벗겨지는 고문을 당했다. 이집트에 건립된 거대한 사원들, 조각상들은 모두 불타고 파괴됐다. 로마와 그리스에서 자유로운 종교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모두 쫓겨나거나 처형당했다. 기독교는 사랑과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외였다.

저자는 다신교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저지른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을 이 책에서 낱알이 보여준다. 이집트, 터키 북부, 로마, 시리아 사막, 아테네까지 수천 년간 보존된 고대 역사를 모두 없애고, 일부를 남겨 그 위에 내용을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등 고대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살시킨 사건을 제시한다. 기독교는 이토록 잔인하고 인정 사정없는 조치로 입지를 굳혔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회는 물론 전 세계 대형 박물관에 고쳐 쓴 옛 자료와 망가진 유물을 마치 힘들여 발굴한 것처럼 전시하는 방식까지 택했다. 이 가면 뒤에서 어마어마한 고대 역사와 정신, 지혜가 소실되었다는 사실과 기독교의 융성을 위해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픈 역사의 순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 “고전 세계가 허물어지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영리하게 일깨우는 책” - 「선데이 타임스」

* “파괴와 절망에 관한 흥미로운 책. 진지한 학문적 주제에 뛰어난 저널리스트의 표현력이 결합된 결과물” - 「타임(The Times)」

<목차>

서문: 시작

머리말: 결말

1. 보이지 않는 군대
2. 악마의 전쟁터
3. 지혜는 어리석은 것
4. ‘몇몇 순교자들’
5. 정신 나간 사람들
6. 세상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
7. 신전에 대한 경멸
8. 악마를 파괴하는 법
9.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
10. 악마의 컵에 담긴 음료
11. 악마의 오류를 정화하라

(이하 생략, 총 16장까지 구성)

<저자 소개>

캐서린 닉시(Catherine Nixey)는 메리 비어드의 제자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서양고전학을 공부하고 몇 년간 고전학을 가르치다가 타임지에서 예술 기사를 쓰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해 왔다. 라이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에도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BLOOD TIES

가제 : 새가 가르쳐준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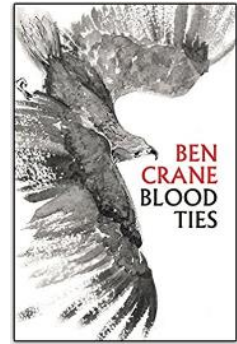
저자 : Ben Crane

출판사: Apollo

발행일: 2018년 10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외국에세이



★ 영국의 에이전트가 밤새 읽고 수십 만 달러 규모로 그의 책 2권 출판 계약 체결, 독일 판권 판매 완료(수만 달러 규모 pre-empt)

★ 헬렌 맥도널드의 『메이블 이야기』에 비견되는 책 - 그보다 아름다운, 소설처럼 읽히는 책

사람과 사람의 소통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던 한 남자가 우연히 손에 내려 앉은 매를 본 순간, 비로소 평생 그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었던 유대감을 느낀다. 강렬하고 또렷하게 가슴을 치고 들어온 그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행복하고 순순히 매의 규칙과 본능을 받아들여야 매와 인간의 신뢰 관계는 단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그는 홀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매 훈련 기술을 익히면서 세상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비로소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병을 딛고 아이와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는 법을 점차 알아간다.

저자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한 편의 문학 작품처럼 유려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회고록에 담아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야생 속 매와의 특별한 관계와 잔혹하면서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매의 행동과 본능, 평범한 사람들 속에 섞이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 헤매던 저자 자신의 집착과 상실감, 슬픔, 깨달음이 솔직하고 흡입력 있는 글로 묘사된다.

“결국 자유롭게 날아갈 대상에게 나의 인생과 사랑,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히피족과 함께 여행을 하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고 자연 속에서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영국의 시골에서 저자를 낳아서 키웠다. 어릴 때부터 숲에서 비밀 터널을 만들고, 불 피우는 법을 익히고 강에서 직접 물고기를 잡아 그 자리에서 구워 먹기도 하면서 살아온 저자는 부모님이 도시로 이사를 결정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가장 어려운 숙제였다. 상대방의 말 한 마디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기까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다. 장기적으로 탄탄한 관계를 맺기가 힘들고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 감정이 무너지면 회복될 때까지 너무나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소비됐다.

그런 그는 우연히 매를 접하고 맹금류만의 매력적인 습성을 알게 되었고, 매 훈련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길로 정해진 운명이었다고 말한다. 바로 그 세계에 폭 빠진 그는 매의 본능과 사람의 본능이 만나는 지점, 자연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매와의 교감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여행에 나선다.

오스트리아의 고성과 독일, 북유럽의 험준한 산맥 위로 솟아오르는 검독수리, 인도 수 족의 보존구역에서 불과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머리 위를 뱅뱅 돌던 잘 훈련된 매, 새벽부터 뿌연 더위가 내려 앉은 크로아티아에서 메추라기를 사납게 뒤쫓던 매, 사우스 다코타의 혹독한 겨울날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던 강인한 매, 그리고 텍사스에서 발견한, 가족 단위로 이동하던 야생 해리스 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자연과 호흡하며 사는 매와 오랜 세월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온 방식으로 매를 기르고 매의 도움을 받아 먹을 것을 사냥하는 원시 부족의 놀라운 기술이 생생하게 소개된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꾸준히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금방 야생의 본능이 깨어나는 매를 다루는 방법, 협박이나 구슬림은 전혀 통하지 않고 인간과 굳건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오직 매의 선택에만 맡겨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들, 나름의 논리와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매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를 얻는 방법 등 매를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가득하다.

저자는 매를 향해 집착 어린 열정을 쏟으며 끊임없이 자문한다. “결국에는 자유롭게 날아갈 대상에게 나의 인생과 사랑,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고민은 처음으로 태어난 저자의 아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세상에서 벗어나 매 훈련가가 되고, 예기치 못했던 병을 진단받고 그로 인해 아이와의 관계가 뼈격대는 과정과 마침내 매와 아이를 돌보고 공존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저자의 여정은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목차>

머리말. 매 훈련사와 매

1장. 파키스탄으로 가는 길 / 마을에서 만난 참매 / 비행하기 좋은 상태 등

2장. 더 먼 곳으로 떠난 여행 / 해리스 매 / 미국 텍사스 등

3장. 품위 / 탄생 / 분석과 이해 / 아이 / 안전 / 오두막 등

4장. 재활 / 소년 등

5장. ‘CC’ 여름 / 각인 / 새로운 삶 / 집 / 둥지 짓기 등

<저자 소개>

벤 크레인(Ben Crane)은 사진작가이자 매 훈련사, 미술 교사이다.